

三國遺事 所載 說話의 通時的 研究

—金現感虎를 中心으로—

金 榮 晩*

- | | |
|--------------|----------|
| I. 序論 | IV. 變異樣相 |
| II. 形成過程 | V. 結 論 |
| III. 文獻에의 定着 | |

I. 序 論

三國遺事 所載 설화가 수천 년 동안 口傳되어 오던 끝에 비로소 문헌에 정착된 것이라는 사실을 看過한 채 마치 그것이 우리 설화의 원형이고 또 신라시대 설화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殊異傳이 전하지 않는 지금 殊異傳 逸文 10여 편과 삼국유사 등 몇몇 문헌에 의존해서 신라 설화의 全貌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헌의 벽을 뛰어넘어 각 지방에서 구전되고 있는 설화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이를 삼국유사 所載 설화와 비교함으로써 신라 설화의 참모습을 밝혀야 될 것이다.

다행히 필자는 삼국유사 卷5 感通 第7 所載 「金現感虎」 설화가 현재 몇몇 지방에서 口傳되고 있음을 알고 採錄된 설화 자료를 조사한 결과 同系說話 5편을 찾을 수 있어서 이것과 문헌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신라 설화의 一端을 살펴보고자 本稿를 草하게 되었다.

이 설화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大東韻府群玉에도 「虎願」이라는 제목으로 殊異傳에서 轉載하고 있어서 두 문헌의 대조를 통해 이 설화가 문자로 고정된 시기를 밝힐 수 있으며 또 이를 口傳說話와 비교함

* 釜山産業大學 講師

으로써 通時的인 면에서 이 설화를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本稿에서는 본 설화의 발생과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문헌설화간의 비교를 통해 문헌에의 정착 연대를 確定하여 그에 附隨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끝으로 현재까지 口傳되고 있는 설화 5편과 상호 비교하여 그 變異樣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形成過程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가 전래된 신라는 비록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일단 기반을 구축한 뒤부터는 신라인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는 종교로 정착되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갔다. 이러한 불교의 전파과정에서 深奧하고 難解한 佛法을 되도록이면 쉽고 흥미롭게 전하면서 민중 속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布敎성과 興味性を 아울러 가진 많은 불교설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寺刹緣起說話에서 특히 이러한 면을 많이 볼 수 있으니 각 寺刹마다 얹혀 있는 異蹟이 佛法과 결부되어 흥미롭게 說話化됨으로써 민중들로 하여금 쉽게 불교사상과 친숙하고 불교에 대한 강한 信心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緣起說話를 가진 寺刹이 68개소나 기록되어 있어서¹⁾ 불교의 설화화에 대한 這間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불경 중에는 佛陀의 사상을 비유와 寓話의 형식을 취해서 說한 경전이 수많이 있으니 이것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기타 여러 나라의 寓話文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佛典說話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민중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한다는 布敎성과 興味性を 아울러 갖추고 있는 셈이니 우리의 佛敎說話도 佛典說話의 이러한 의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²⁾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발행한 三國遺事 索引의 傳說條에 의거한 것임.

2) 佛敎說話의 敎化性에 대해서는 黃濱江, 新羅佛敎說話研究(一志社, 1976), pp. 12 ff 참조.

本稿에서 고찰해 보려고 하는 金現感虎說話도 여러 가지 불교사상을 흥미있게 說話化한 寺刹緣起說話로서 寺刹을 중심으로 해서 승려나 信徒들을 통해 口碑傳承됨으로써 불교의 布敎에 큰 몫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까지 口碑되고 있는 同系說話 중에 寺刹緣起譚과 결부된 설화가 많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 보겠다.

본 설화에는 報恩說話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주인공 金現은 처녀로 변한 호랑이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처녀는 인간이 아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金現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이를 큰 은혜로 여긴다. 그래서 처녀는 그에게

且賤妾之於郎君 雖曰非類 得陪一夕之歡 義重結構之好

라 하고 또

與其死於等閑人之手 曷若伏於郎君刃下 以報之德乎

라 하여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金現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녀는 결국 자결하여 그가 높은 벼슬을 얻도록 해 줌으로써 그의 은혜에 보답한다. 한편 金現도 자기를 출세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처녀의 은혜를 고맙게 여겨 그녀의 소원대로 西川가에 절을 짓고 항상 梵網經을 講하여 처녀의 저승길을 축복해 줌으로써 자기 몸을 죽여 그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한다.

본 설화의 중심되는 내용은 이와 같이 金現이 처녀에게 사랑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처녀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그로 하여금 높은 벼슬을 얻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고, 다시 金現은 절을 지어 그녀의 저승길을 축복함으로써 자기를 출세시켜 준 처녀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다.

報恩은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는 인간의 기본윤리이므로 이러한 報恩說話는 세계 어느 곳 없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인간의 인간에 대한 報恩보다 본 설화와 같이 동물의 인간에 대한 報恩이 월등히 많아서 거의 8할

이나 된다. 또 報恩의 動機는 대개 죽을 고비(鬚, 가지, 홍수)에서의 구제가 많아 報恩의 행위를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며 그의 養育, 昇天도 있지만 본 설화와 같은 애정은 극히 드물다. 報恩의 行爲로서는 목숨을 구해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 설화로서의 흥미성을 더하며 그의 財物, 結婚, 榮達 등이 있으며 본 설화에서는 榮達과 追薦으로 되어 있다.

報恩說話 중에는 불교를 背景思想으로 한 설화가 많이 있는데 본 설화도 역시 그러하다. 불교에서는 특히 이 사상을 知恩報恩思想이라 하여 기본적인 윤리의 하나로 여긴다.³⁾ 이 사상을 설화화한 것이 佛典說話 속에 많이 있으니 六度集經 卷3에 나오는 설화 같은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⁴⁾ 이러한 설화가 불교의 傳來와 함께 이 땅에 流布되면서 우리 고유의 報恩說話에도 이 思想이 加味되기 시작하여 金現感虎와 같은 불교적 知恩報恩思想을 담은 설화가 형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 金現感虎說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호랑이 說話이다. 공포의 대상임과 동시에 靈物로 존경을 받기도 했던 호랑이인지라 우리나라에는 그에 얽힌 많은 설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설화 중에는 인간이 호랑이로 변한다든지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모티프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⁵⁾ 金現感虎는 그 중의 化人 모티프를 借用하여 형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요컨대 이 說話는 報恩說話가 불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호랑이 설화의 化人 모티프와 결부되어 형성되었으며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布教性과 흥미성을 아울러 지니면서 민중들 사이에서 口傳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Ⅲ. 文獻에의 定着

이렇게 하여 형성된 이 설화는 數世紀 동안 口傳되어 오다가 문헌에 정

3) 金榮晚, 京板 沈清傳의 佛敎의 考究, (釜山大學校大學院, 1979), p.15.

4) 李箕永, 宗敎史話(韓國佛敎研究院出版部, 1978), pp.102-5 에도 비슷한 설화가 있다.

5) 黃浪江, 「韓國民族說話와 호랑이」, 국어국문학 55-57 合輯號(국어국문학회, 1972); 張德順, 「虎說話」,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李家源, 한국 호랑이 이야기(民潮社, 1977).

착됨으로써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三國遺事 所載 「金現感虎」와 大東韻府群玉 卷 15 所載 「虎願」을 비교하면서 이 설화의 문헌에의 정착시기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먼저 두 문헌에 실린 설화의 문장을 비교해 볼 때 그 표현의 類似性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설화의 문장상의 표현이 같은 것이다. 물론 길이에 있어서는 大東韻府群玉의 백과사전적 성격 때문에 「虎願」은 그 내용이 많이 축약되어 있으나 그 줄거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이는 同書 卷九 孝家里條가 三國史記 卷 48 列傳 8 向德條의 요약이면서도 그 줄거리는 동일함과 같은 것이다.⁶⁾ 또 부분적으로 설화 진행에 지장이 없을 만큼 사소한 문장이나 구절의 생략과 介詞의 생략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것도 분량을 가능한 한 줄이고 압축·요약하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다만 표현상의 차이나 의미상의 차이, 또는 다른 뜻의 附加 등이 문제라면 문제겠는데 이제 이러한 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虎願의 문장을 金現感虎의 문장과 句節을 맞추어 가며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傍點과 번호를 붙여 표시해 보겠다.

「金現感虎」와 「虎願」의 文章 比較 (金)은 金現感虎 (虎)는 虎願임

〔新羅俗 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逸與輪寺之殿塔 爲福會(金)〕

〔新羅俗 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逸與輪寺 塔 爲福會(虎)〕

〔元聖王代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逸不息(金)〕

〔元聖王時^① 有郎 金現者 夜深獨逸不息(虎)〕

〔有一處女 念佛隨逸 相感而目送之 逸畢 引入屏處通焉 女將還 現

〔有一 女 隨逸 現^② 遂通

從之 女辭拒而強隨之(金)

而 隨去(虎)^③

6) 黃須江, 「志鬼說話小考」, 新羅佛敎說話研究(一志社, 1976), p. 347.

〔女入謂郎曰 妾以明日入市爲害劇 則國人無如何何 大王必募以重
 女 曰 妾 明日入市爲害 則 王必募以重

爵而捉我矣 君其無糊 追我乎城北林中 吾將待之(金)

爵而捕我矣 君其無糊 追我于^④ 北林中 吾將待之(虎)

〔但爲妾創寺 講眞詮資勝報 則郎君之惠莫大焉 遂相泣而別(金)
 但爲我創^⑤ 資勝報 則郎君之惠 也^⑦ 遂相泣 別(虎)

〔次日果有猛虎入城中 則甚無敢當 (金)

翌日果有猛虎入城中 無敢當者^⑧ (虎)

〔元聖王聞之 申令曰 設虎者爵二級(金)

王 令曰^⑩ 有能捕虎者爵二級(虎)

〔現詣闕奏曰 小臣能之(金)

現詣闕奏曰 小臣能之(虎)

〔現持短兵入 林中 虎變爲娘子 熙怡而笑曰 昨夜共郎君纏緜之事

現持短兵入北林中^⑫ 虎變 娘子 笑曰 昨日^⑬ 纏緜之事

惟君無忽(金)

惟君無忽(虎)

〔乃取現所佩刀 自頸而仆 乃虎也(金)

乃取現所佩刀 自劉而仆^⑭ 乃虎也(虎)

〔現既登庸 創寺於西川邊 號 虎願寺(金)

現既登庸 創寺於西川邊 號曰虎願^⑮ (虎)

위에서 보듯이 두 문헌의 문장의 표현이 매우 똑같으며 다만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는 6 군데(④⑤⑦⑧⑩⑫)와 다른 뜻을附加한 6 군데(②③⑨⑪⑬⑮), 그리고 의미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3 군데(①⑥⑭) 등 680 여字 중 15 군데만이 서로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문헌의 轉載過程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東京雜記 卷三 異文條에도 「論虎藪」란 제목으로 이 설화를 삼국유사에서 轉載하고 있는데 두 문헌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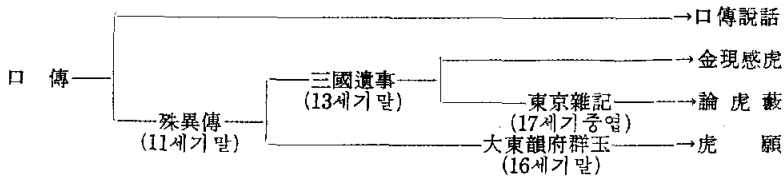
「金現感虎」와 「論虎藪」의 文章 比較 (金)은 金現感虎 (論)은 論虎藪임

-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 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遶輿輪寺之殿塔 爲福會(金)
 新羅俗 每 仲春 初八日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遶輿輪寺 殿塔 爲福會(論)]
- [元聖王代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遶不息(金)
 元聖王 有郎君金現者 夜深獨遶 (論)]
- [少選 有三虎咆哮而至(金)
 少頃 有三虎咆哮而至(論)]
- [三獸聞之 皆有憂色(金)
 三虎聞之 皆有憂色(論)]
- [與其死於等閑人之手 曷若伏於郎君 刃下(金)
 與其死於 他人之手 曷若伏於 君之刃 (論)]
- [君其無闕 追我乎城北林中 吾將待之(金)
 君其無闕 追我於城北林中 (論)]
- [次日 果有猛虎入城中 剽甚無敢當(金)
 翌日 果有猛虎入城中 剽甚無敢當(論)]
- [乃取現所佩刀 自頸而仆 乃虎也(金)
 乃取現所佩刀 自剄而仆 乃虎也(論)]
- [現出林而託曰 今茲虎易搏矣(金)
 現出 曰 虎已搏矣(論)]
- [常講梵網經 以導虎之冥遊(金)
 常講梵網經 以導虎之冥報(論)]
- [因名 論虎林 稱于今(金)
 名其林曰論虎林 (論)]

여기서도 句節이나 문장의 생략은 不知其數이고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4 군데(②④⑤⑩), 표현상의 차이뿐인 경우가 6 군데(③⑥⑦⑧⑨⑪), 다른 뜻을 附加한 경우가 2 군데(①⑫)이며, 따라서 轉載한 문장임에도 12 군데의 달라진 곳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써 볼 때 金現感虎와 虎願 사이에 15 군데의 달라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헌의 문장 표현이 類似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표현의 類似性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설화의 底本이 동일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삼국유사의 金現感虎 설화가 一然에 의해 문자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문헌에 정착되어 있어서, 이 문헌을 底本으로 하여 一然是 삼국유사에 「金現感虎」란 제목으로 轉載하고 權文海는 大東韻府群玉에 「虎願」이란 제목으로 縮約하여 실었다는 말이다. 만약 一然이 다른 문헌을 참고로 하여 기록했거나 혹은 그 당시 口傳되어 오던 설화를 자신이 직접 문자로 기록했다면, 아무리 줄거리는 변하지 않는 설화라 할지라도, 殊異傳을 底本으로 한 大東韻府群玉의 문장표현과 것처럼 類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령 權文海가 三國遺事 所載 설화를 요약하여 大東韻府群玉에 실으면서 出典만 殊異傳이라고 잘못 기록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虎願이 殊異傳을 底本으로 한 것과 같이 金現感虎도 같은 殊異傳에서 轉載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제통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金現感虎와 虎願이 모두 殊異傳을 底本으로 하여 轉載된 것이라면 두 설화의 著作時期를 論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두 설화가 동일한 문헌에서 轉載되었기 때문에 다만 문헌에 轉載된 時期만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또 金現感虎가 殊異傳 逸文이 아니라는 견해⁷⁾도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一然이 三國遺事를 저술할 때 殊異傳에서 金現感虎를 轉載했으면서도 왜 出處를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삼국유사에는 많은 문헌이 典據로 제시되어 있어도 때로는 典據를 밝히지 않고 있

7) 車浴柱, 「金現感虎의 比較研究」, 論文集 第七輯(濟州女子師範大學, 1978).

8) 崔康賢, 「新羅殊異傳 小攷(續)」,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의문점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六堂에 의하면,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도 그 典據가 따로 있으니 예를 들면 卷3의 「萬佛山」이 唐蘇鶚의 杜陽雜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든지 「眞聖女大王」 중의 居陀知的 榮華와 「洛山二大聖」 중의 調信의 夢幻과 「惠通降龍」 중의 龍柳의 怨害 등 首尾整然한 一篇文도 모두 單行한 別記에서 그대로 採入된 것임과 같다.⁹⁾ 더구나 金現感虎 설화의 後尾에 잇달아 나오는 申屠澄 설화가 太平廣記 卷429에 收載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出處를 밝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위의 의문점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金現感虎 설화가 虎願 설화와 문장 표현상 같음을 살피고 두 설화가 다같이 殊異傳을 底本으로 해서 轉載된 것임을 밝혔는데, 이제 이 사실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겠다.

우선 金現感虎가 一然에 의해 처음으로 문헌에 定着된 것이 아니라, 殊異傳에 이미 문자로 定着되어 있는 것을 一然이 轉載했다는 사실에서 이 설화의 형성과 變異를 通時的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殊異傳이 著作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저자인 朴寅亮의 生沒年代를 고려해 볼 때 三國遺事에 비해 대략 200여 년쯤 앞서는데, 이것은 결국 金現感虎가 삼국유사에 기록되기 200여 년 전에 이미 문헌에 定着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200년이란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200년은 7대에 해당되니 口碑文學史의 면에서 볼 때 이 7代라는 기간은 설화가 口傳되는 동안에 變異가 생기려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더우기 大東韻府群玉 卷1 纂輯書籍目錄 本國諸書條에 있는 대로 殊異傳의 작자를 崔致遠으로 본다면 金現感虎의 定着時期는 삼국유사보다 무려 400여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 설화에 一然의 刪略修正이 없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있다.¹⁰⁾ 이 설

9) 崔南善, 新訂 三國遺事(民衆書館, 1975), p. 20.

10) 李家源, 「虎叱研究」, 燕巖小說研究(乙酉文化社, 1978), p. 510.

화의 後尾에 잇달아 나오는 申屠澄說話가 太平廣記 卷 429 虎四에 있고 그 出典이 「河東記」라 되어 있는데, 一然이 이 설화를 인용하면서 太平廣記와 河東記 중에서 어느 책을 근거로 삼았는지는 河東記를 보기 전에는 단정을 내릴 수 없지만 太平廣記 所載 설화와 비교해 볼 때 一然이 인용한 설화가 많이 刪略修正되어 있으니 金現이 지었다는 論虎林도 一然에 의해서 刪略이나 修正이 많이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申屠澄說話가 刪略修正되었다고 해서 金現感虎 설화도 刪略修正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一然이 중국 설화인 申屠澄說話를 인용할 때는 添削을 했다 하더라도 金現感虎를 인용할 때는 임의로 添削하지 않고 원문대로 옮길 수도 있는 일이고, 더 우기 一然이 삼국유사에 기록한 金現感虎는 金現이 지은 論虎林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殊異傳에서 轉載한 것이기 때문이다. 金現感虎 설화에 一然의 刪略修正이 없었으리라는 것은 또 삼국유사를 편찬한 一然의 태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으니 즉 그는 수많은 典據를 인용하면서도 자기의 의견과 인용문과를 분명하게 구별하였고 또 인용을 할 때도 불필요한 부분이나 筆寫의 잘못, 誤讀의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내용을 變改시키지 않았던 것이다.¹¹⁾ 따라서, 金現이 지었다고 하는 「論虎林」이란 글이 殊異傳에 收載되기까지의 變異는 생각할 수 있어도 殊異傳과 三國遺事 사이에는 變異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많은 설화가 삼국유사에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많은 變異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 金現感虎만큼은 殊異傳에 있는 설화가 그대로 轉載됨으로써 적어도 11세기 이전의 설화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이 설화 속에 나타나 있는 佛敎思想도 一然에 의해 潤色된 것이 아니라 殊異傳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화는 報恩思想이나 輪廻思想, 靈驗思想 등의 佛敎思想¹²⁾이 在來의 호랑이설화에 결부되면서 寺

11) 崔南善, op. cit., p.9; 李基白,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創作과 批評 제11권 제3호 (創作과 批評社, 1976年 가을).

12) 이 설화 속에 표현되어 있는 佛敎思想에 대해서는 金榮晚, 「金現感虎說話에 나타난 佛敎思想攷」, 國語國文學 第18·19輯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을 參考할 것.

刹緣起譚으로 형성되어 민중들 사이에서 口傳되어 오다가 殊異傳에 기록되고 다시 이것이 삼국유사에 轉載된 것이다.

IV. 變異樣相

모든 설화가 다 그렇지만 특히 불교설화는 그 教化性 때문에 口傳되는 과정에서 變異와 再創造의 폭이 크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중들에 의해 口碑傳承되는 설화가 문헌설화보다 훨씬 더 생생한 설화의 원모습을 보여 줄 때도 있다.¹³⁾

이러한 견지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採錄된 同系의 口傳說話 5편을 비교하여 變異樣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각 설화의 내용을 일람표로 정리하여 <별표 1>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가해 보겠다.

①은 金現感虎說話와 가장 가까운 「신흥사 유래」설화로서 忠南 唐津에서 採錄되었다. 남주인공이 성씨라는 머슴이며 장가들이 소원이던 차스님의 지시에 따라 탐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난다는 점과 호랑이로부터 입은 상처를 절 옆 가랑잎 속에 있는 질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 발라 치료한다는 점이 다를 뿐, 하늘의 꾸짖음으로 처녀가 오빠 대신 벌을 받으면서 남자를 위해 죽으려 하는 점과 이에 대해 남자가 만류하는 점, 죽은 뒤 절을 짓고 위해달라는 부탁을 남기는 점 등 나머지 부분은 金現感虎설화와 매우 흡사하다.

더우기 장가들이 소원이던 남주인공이 스님의 지시에 따라 200일 동안 탐을 돌며 소원을 빈 결과 그 영험이 나타나 머슴의 신분으로서 좋은 곳에 장가를 들게 된다는 데서 靈驗思想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報恩思想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녀가 죽음으로써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고 높은 벼슬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데서 은혜에 보답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처녀가 살생을 많이 한 죄를 참회하기 위하여 탐돌이를 하며 그 죄를 하늘이 꾸짖고 처녀가 죽으면

13) 黃汎江, 新羅佛敎說話研究(一志社, 1976), pp.175-85.

(별표 1) 內容別 比較表

	김 현 감 호	①신홍사유래 ¹⁴⁾	②호암사의유래 ¹⁵⁾	③호문사의유래 ¹⁶⁾	④호랑이치녀의 주요 ¹⁷⁾	⑤호랑이치녀 ¹⁸⁾
남자 주인공	김 현	성씨라는 머슴	김 평식	어느 젊은이	월성숲 경비청년	가난한 종각
때	신라 원성왕	옛날	옛날	신라	신라	옛날
장소	홍문사	충남 당진군 신평	경주 어느 절	미상	월성	미상
남녀가 처음 만 나는 장면	남녀가 같이 밭을 갈다가 서로 만나 정을 통함	장가들기를 빌며 밭을 갈다가 참회 하며 밭을 갈던 처녀를 만나 정을 통함	불공 축원을 하며 절을 돌아갈 때 도는 여자를 만나 정을 통함	국가에 유공하고 후세에 이름을 남 기기 위해 절을 돌아가 치녀를 만남	월성숲을 경비청 다가 치녀를 만남	신세 타령을 하며 산중으로 올라가 다가 빨래하는 처 녀를 만남
치녀의 집애 갈 때	치녀가 사양·거절 하나 억지로 감	치녀가 헤어져 하나 끝까지 따라 감	처음에는 못오게 하나 나중엔 허락 함	자진해서 가자 하 여 좋다고 따라감	치녀가 먼저 가자 하여 같이 감	치녀의 어머니와 오빠를 죽이고 부 부가 됨
남자에 대한 노력 의 태도	구석진 곳에 숨겨 줍	골방에 처넣고 잠 금	집에 온 것을 매 우 싫어함	다락방에 모셔둠	광에 가둠	×
치녀 오빠의 수	셋	서녘	셋	둘	하나	하나
오빠로부터의 위 기를 모면하는 방법	하늘의 꾸짖음	하늘의 꾸짖음	육황님이 방애 계신다고 축원	할미의 야단	치녀의 거짓말	×
호랑이가 죽는 동 기	오빠의 벌을 대신 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오빠벌을 대신하 고 좋은 여자 만나 절 살게 해주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 기 위해	남자가 늙은 벼를 얻도록 하기 위해	남자의 이름을 내 기 위해	미상
호랑이가 죽으려 할 때의 남자의 태도	백필의 죽음을 바랄 수 없다 함	당신을 죽이고 내 가 잘 살 것 같으 냐고 함	호랑이의 부탁이 드르므로 별다른 태 도 없음	치녀가 죽는 줄을 몰라 별다른 태 도 없음	미상	미상

호랑이를 잡는 법	북쪽 숲까지 오면 기다리겠다 함	구체적 방법 없음	건드리기만 해도 죽겠다 함	쉽게 잡도록 해 주겠다 함	몽둥이로 잡으라 함	인덕에 누운 것을 총을 쏘아 잡으라 함
죽기 전의 호랑 이의 부탁	질을 새우고 불경 을 강하여 좋은 보답을 얻도록 해 달라 함	질을 짓고 위해 달라 함	질을 지어 자기 형용을 그려 놓아 달라 함	없음	없음	호랑이의 일부분 을 배어 숨어 있으 라 함
호랑이를 죽인 뒤 에 받는 상	2급 벼슬	큰 벼슬과 현상급	높은 벼슬과 평생 재물	천금상과 만호	삼천단급	천금상 만호후
상처 치료 방법	홍문사 간장과 나 발소리	가랑잎 속 질그릇 에 고인 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호랑이가 죽는 방 법	목을 찢러 자결함	배를 찢러 자결함	숲속에 들어가니 금시에 죽음	배를 찢러 자결함	가만히 있는 것을 몽둥이로 때려 잡 음	누워 있는 것을 총을 쏘아 잡음
호랑이가 죽은 뒤	벼슬하고 호원사 를 지어 저승길을 축부해 줌	벼슬하고 장가들 고 망각재(지급의 신흥사) 지음	호암사 짓고 법의 모습을 그려 불입	은혜를 갚기 위해 호문사 지음	상을 타고 화랑이 라 불림	천금상 만호후로 봉해 잘 됨

- 14) 印權煥, 韓國口碑文學大系 4-1 忠清南道 唐津郡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p. 177-83. 설화의 제목은 採錄本에 붙여진 그대로 사용한다. (以下 同一)
- 15) 趙東一·林在海, ibid. 7-2 慶尙北道 慶州·月城篇, pp. 701-7.
- 16) ibid., pp. 770-4.
- 17) ibid., 7-3, pp. 588-90.
- 18) 鄭尙垸·柳鍾穆, ibid., 8-1 慶尙南道巨濟郡篇, pp. 52-3.

서 자기가 죽은 곳에 절을 지어 주고 위해 달라고 한 점 등에서 因果應報에 의한 輪廻思想이 표현되어 있어서 불교적인 사상면에서도 金現感虎 설화와 똑같은 설화임을 알 수 있다.

金現感虎 설화에 나오는 虎願寺는 지금 경주 皇城公園에서 栢栗寺로 가는 小路邊에 그 寺址가 남아 있는데 근처에는 주춧돌과 四方佛이 새겨진 塔身과 屋蓋가 발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며,¹⁹⁾ 근세조선 顯宗時 閔周冕의 東京雜記 속에도 이 절에 대해서 「在府西川邊 新羅金現所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⁰⁾

한편 신흥사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절인데,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진 경주와 당진에 있는 두 寺刹에 얽힌 설화가 이처럼 똑같은 것은 매우 특이하거나와 불교적 報恩說話가 민간에 널리 口傳되어 오던 호랑이의 化人 모티프를 收容하여 두 지방의 寺刹緣起說話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②는 慶北 月城에서 口傳되고 있는 「호암사의 유래」설화이다. 이 설화는 주인공이 김평식이며 여자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죽으면서 부탁하기를 절을 지어 자기의 형용을 그 곳에 그려놓아 달라고 하는 점과 옥황님이 방에 와 제신다고 속여 오빠들로부터 남주인공을 구해준다는 점이 金現感虎와 크게 다르다. 하늘의 꾸밈음 없이 호랑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남녀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 전혀 없다. 이 설화는 사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불 만한 것이 없으니 호랑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죽는 것이므로 報恩思想을 찾아볼 수가 없고 因果應報나 輪廻思想도 희박하다. 다만 두 남녀가 부처님 앞에서 불공축원을 하다가 만난다든지 마지막 장면에서 寺刹緣起說話와 결부된다든지 하는 점에서 원래의 사상적 배경을 간직할 뿐이다.

③은 역시 慶北 月城에서 口傳되고 있는 「호륜사의 유래」 설화이다. 이 설화는 절을 세 바퀴 돌며 남녀 모두 국가에 유공하고 후세에 이름을 남

19) 韓國佛敎研究院, 新羅의 廢寺 I (一志社, 1974), p. 88.

20) 閔周冕, 東京雜記 卷之一 古蹟錄.

기기 위해서 부처님께 축원한다는 점과 처녀가 자진해서 남주인공에게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 점, 살생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과 같은 호랑이의 죽음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처녀가 죽는 줄을 몰라서 이에 대한 남주인공의 갈등이 없다는 점 등에서 金現感虎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輪廻思想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남자가 높은 벼슬을 할 수 있게 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절을 지어 준다고 한 데서 知恩報恩思想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④는 慶北 慶州市에서 採錄된 「호랑이 처녀의 죽음」이란 설화다. 이 설화는 남주인공이 탐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월성숲을 경비하다가 처녀를 만나며 처녀가 집에 놀러가자고 하여 남자가 따라가는 점과 살생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이 없는 점, 남자가 몽둥이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래서 상을 타고 화랑으로 이름이 난다는 점에서 金現感虎와 차이를 보이며 처녀가 남자의 이름을 내기 위해 죽으려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報恩의 의도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靈驗思想이나 輪廻思想 등 불교적인 사상을 표현한 불교설화와도 거리가 멀다. 호랑이가 죽기 전에 남자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으며 남자의 報恩도 없고 寺刹緣起譚과도 결부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증거물이 상실되어 민담으로 변해버린 설화라고 생각된다.

⑤는 慶南 巨濟에서 採錄된 「호랑이 처녀」라는 설화다. 이 설화는 경주 지방의 「호랑이 처녀의 죽음」보다 더 한층 심하게 민담화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가 절에서 소원을 빌다가 서로 만나 정을 통하고 함께 여자의 집으로 가는 부분은 완전히 변모되어, 가난한 총각이 신세타령을 하며 산중으로 올라가다가 빨래하는 처녀를 만나 그녀가 시키는 데로 절에서 물을 떠주는 처녀의 어미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처녀의 오라비도 활을 쏘아 죽인 뒤 처녀와 결혼하여 서울에 가서 산다고 되어 있다. 어머니나 오빠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죽어야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처녀가 남자를 위해서 죽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지 그 동기도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靈驗思想은 물론 報恩思想이나 輪廻思想 등 불교사상과는 전혀 無關한 설화이며 다만 호랑이가 죽으면서 남자가 출세하게 해준다는 부분만 같은 뿐이다. 그리고 호랑이를 죽인 뒤 남자가 숨어 있다가 감추어 두었던 호랑이 꼬리를 증거로 하여 다른 포수를 모두 물리치고 자기가 호랑이를 죽인 장본인임을 밝히는 장면은 일부 地下國大賊除治說話에서 동료의 배반으로 동굴 속에 혼자 남게 된 주인공이 무사히 동굴 속에서 나온 뒤 간직하고 있던 공주의 수건을 증거로 하여 자기가 공주를 구출한 사람임을 밝히는 것과 흡사하여 설화로서의 흥미를 더해 주기는 해도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설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각 설화를 金現感虎를 중심으로 話素別로 비교하여 표를 만들면 <별표 2>와 같이 된다.²¹⁾

(별표 2) 話素別 比較表

김 현 감 호	①신홍사 유래	②호암사 의 유래	③호룡사 의 유래	④호랑이 치녀죽음	⑤호랑이 치녀
(1) V 宗教(탑을 돌려 소원을 빚)	○	○	○		
(2) W2 非人과의 結婚(호랑이치녀와의 結緣)	○	○	○	○	○
(3) P1.1 夫婦間의 人倫(남자를 위해 희생을 결심함)	○		○	○	
(4) R 捕獲(호랑이를 잡음)	○	○	○	○	○
(5) L2, L5 致富와 得官에 의한 幸運(벼슬과 상을 받음)	○	○	○	○	○
(6) Q1 善報(절을 지어주고 靈魂을 薦度함)	○	○	○		

이 표에서 보면 (2), (4), (5)의 話素는 모든 설화에 공통되니 이러한 공동된 화소를 고려하여 이 설화의 類型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의 話素는 ①②③에서 볼 수 있으니 이런 설화는 모두 공통적으로 靈驗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3)과 (6)의 話素는 각각 ①③④와 ①②③에서 볼 수 있으니 이 중에서 ①③의 설화에서 知恩報恩思想을 찾아볼 수 있다.

21) 이 표에서 사용한 話素는 조희웅 교수가 분류한 것을 사용하였다. 曹喜雄, 「韓國說話의 研究」, 國文學研究 11輯(國文學研究會, 1969) 참조.

다음에 별표 1과 별표 2를 종합하여 여섯 편 설화의 공통된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다.

- 신라 때(혹은 옛날① ② ③)
- 어떤 젊은이가 절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다가(혹은 숲을 경비하다가④, 산에서 신세타령을 하다가⑤)
- 처녀로 변한 호랑이를 만나 서로 인연을 맺고
- 처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혹은 처녀가 먼저 가자고 하여③④) 그녀의 집에 가서
- 하늘의 꾸짖음(혹은 처녀나 노파의 거짓말②③④)에 의하여 오빠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난 뒤
- 남자의 출세를 위하여(혹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②) 여자가 자결하고(혹은 타살되고④⑤)
- 남자는 출세를 한 뒤
- 여자를 위해 절을 지어 준다(④⑤제외)

결국 이 설화는 <여자로 변한 호랑이가 목숨을 바쳐 자기와 인연을 맺어준 남자를 영달시킴으로써 은혜를 갚는 이야기>로 요약되어 국내에서 시도된 類型分類上으로는 信仰價值譚 중의 報恩²²⁾이나 神異譚 중의 應報譚²³⁾에 속하며 S. Thompson의 類型分類集에서는 적합한 類型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모티프로는 B 651.9 Marriage to tiger in human form.과 B 581 Animal brings wealth to man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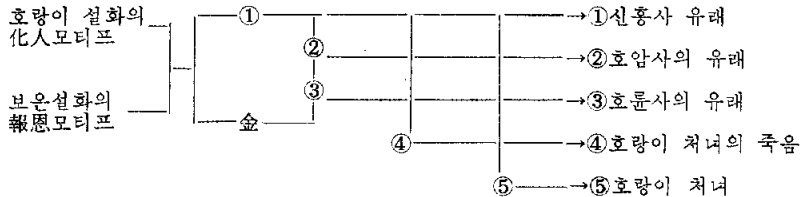
그리고 그 變異樣相으로 보아 忠南 唐津에서 전승되고 있는 「신흥사 유래」 설화는 호랑이의 化人說話에 불교사상이 加味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경주의 金現感虎說話가 형성된 후 오래지 않아 그쪽으로 곧 전파된 것이며 증거물인 寺刹의 명칭만 그 지방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 「호암사의 유래」나 「호륜사의 유래」, 「호랑이 처녀의 죽음」 설화는 金現感虎說話

22) 張德順 교수의 분류에 의거한 것임.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p. 32 참조.

23) 曹喜雄 교수의 분류에 의거한 것임. 韓國口碑文學會, 韓國口碑文學選集(一漸閣, 1980) p. 18 참조.

가 後代로 口傳되는 과정에서 약간씩 變異를 보인 것이며 「호랑이 처녀」 설화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後代에 경남지방으로 전해진 것으로서 증거물이 상실되면서 완전히 민담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論述한 6편의 설화의 형성과 전승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V. 結 論

구비문학으로서의 설화의 생명이 민중들에 의하여 口傳되는 데 있다면 문헌설화는 재창조의 생명을 잃어버린 설화이다. 그러나 문헌설화는 문자로 고정된 시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설화의 通時的 연구에 있어서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문헌설화가 더 先行하는 것인지 현재 구전되고 있는 설화가 더 先行하는 것인지는 速斷할 수 없다.

삼국유사 所載 설화를 문헌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口傳되고 있는 설화와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이미 彼擲된 적이 있었지만²⁴⁾ 口傳資料의 부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口傳資料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金現感虎 설화를 通時的 觀點에서 연구해 본 것이다. 이 설화의 모티프가 그 후 어떻게 소설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힘이 미치지 못했음이 유감스러우며 또 口傳資料의 제한으로 인한 본 논문 한계성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口傳說話를 수집하여 삼국유사 설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설화문학의 참모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4) 조동일, 「《삼국유사》설화 연구의 문제와 방향」, 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 1980), p.119.

지금까지 論述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서 이를 삼국유사 설화 전체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打診해 본다.

1. 金現感虎說話는 호랑이의 化人 모티프와 불교적 報恩說話가 융합되어 寺刹緣起譚化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와같은 佛敎의 說話化는 대중들에게 佛法을 널리 전하기 위해 佛敎思想을 흥미있게 說話化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2. 金現感虎說話는 大東韻府群玉에 있는 虎願說話처럼 殊異傳을 底本으로 하여 三國遺事에 轉載됨으로써 이미 11세기말에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서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불교사상도 一然에 의해 潤色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이 설화 속에 표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삼국유사 所載 설화는 비록 典據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도 一然 자신이 改變·潤色하지는 않아서 신라시대 설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3. 金現感虎說話의 類型은 <여자로 변한 호랑이가 자기와 인연을 맺어준 남자를 목숨을 타쳐 영달시켜 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는 이야기>이며 현재의 口傳說話 중에서 「신흥사 유래」 설화가 이와 가장 가깝고 호암사의 유래」나 「호문사의 유래」 설화는 약간의 變異를 보여주며 「호랑이 처녀의 죽음」과 「호랑이 처녀」 설화는 이에 비해 훨씬 變異가 심한 편이며 後代에 와서 民譚化한 것이다.